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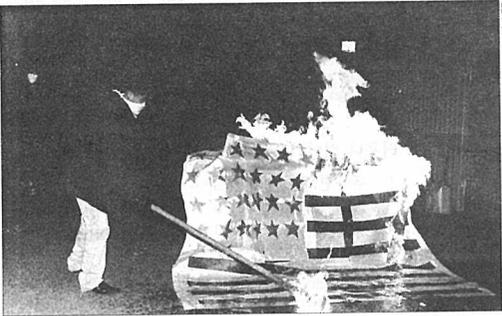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12월 7일 (월) 제729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일 편집인권 주간 고영훈 편집장 박운경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외) 외대정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통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7기대 흥원사 모현동 창신동 산 89

“미국이 싫다” 한총련, IMF 1주년 집회

채협상·민족자주·미국반대 외치며 성조기 태위



서울지역학생총연합회(서총련)는 IMF협상 1년이 되는 지난 3일(월) 오후 4시 IMF 신라호텔 1년 집산 및 대미교육의교 김대중 정권 규탄, 반외세 자주화, 12·12 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대중, 서울대·한양대 등 20여개 대학 4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시작한 서총련 결의대회에서 고대 총학생회장 이강원(공대 4)군은 “IMF신라호텔 1년의 결과물은 민중들의 피나는 눈물밖에 없으며, 반부패차 심화한 민족경제는 파국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오는 12일(토) 2차 민중대회에서 미국의 IMF와 김대중 정권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독도와 그 주변 해역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김대중정권에 대해 동맹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김영민씨는 “외자

교수정례회의에서 이상준 교수 발언 예경

매학기말 각 부처의 업무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교수정례회의가 오는 11일(금) 오후 6시 서울백화점 국제관 2층 예경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교원 징계위원장이 이상준(영어과) 교수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상준 교수의 발언은 징계 규정에 대하여 일부 학생들의 구명 움직임이 있는 등, 그러나 발언의 내용에 대해 이교수는 “중거주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 징계이므로 반복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혀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징계위원회의 현재 특별한 활동은 없으나 아직 해체되지 않은 상황이며 징계조치된 19명의 교수 중 박병호(경제학과)교수를 제외한 18명의 교수가 교육부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이다.

한편,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교무처는 △98학년도 신입생의 증원계획(외국인 교수 포함 31명) △사회봉사 활동 학점인정제 △학제 개편을 포함한 교육개선위원회 활동(중인)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백운경 기자

지면안내

- 우리학교 대학원 시설 매우 우수 3면
서울 시내 9개 대학중 학생들의 ‘종합만족도’ 최하위 100점 만점에 최하 12점이다. 대학원 자체가 평생 낙제관. 차라리 안다치고 만다.
- 조선일보, 너 오늘 일제만났다 5면
영리를 위해서는 민족의 배신도 서슴치 않는다. 기사를 ‘작문’ 해서라도 우리의 거짓 논리를 주장한다. 매일매일 ‘작문’만 하는 조선일보 기자는 소설가(?)
- 양심수를 위한 시의 노래의 발표 7면
지난 89년 양심수 전원 석방’을 목표로 시작되어오는 12일(토)로 1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갖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양심수는 10년간 풀려날줄 모른다.
- 만나보기-망빠취해 다녀온 빌란’말’ 신문양기 8면
월간 ‘말’ 150호 기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취재하고 돌아온 신문양 기자를 만나보았다. 신 기자의 말에 따르면 평일은 어느때처럼 평온했다고 하는데.
- 국방예산 삭감으로 교육계정 확보 10면
IMF로 생활고는 높아진가는데 사회교육 부담 오히려 늘어. 등록금 등절도 결국 인상이되는 점.

대학원 교육 ‘꿀찌’ 차지

서울시내 9개 대학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 9.10일 서울시내 사립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종합만족도’ 면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대학원생 대표자 회의(회장 홍정우)와 서강대학교 대학원이 우리학교를 비롯, 연세·고려·경희·중앙·서강·한양·이화여대 등 9개 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대학원생의 학사 및 생활, 복지 등 교육 및 행정서비스 전반적 실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추출된 전체 1429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교과목 △환경서비스 등 세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 각 영역은 △행정서비스-입학, 등록금 및 장학금, 조세제도, 논문, 정보제공 서비스 △교과 서비스-과목개설 및 수강신청, 수업, 교수들의 자질 및 열의, 교수임용, 강의평가, 종합시

험, 학점교환제 △환경서비스-연구실 및 연구시설, 도서관, 복지 및 기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우리학교 대학원은 주요 항목에 대한 만족도와 그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가중치로 더한 값인 ‘종합만족도’에서 33.4점(100점 만점)을 얻어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9개 대학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영역별로는 개인노력에 따른 학습성취도, 수업진행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교수자질 및 열의, 연구시설, 복지, 논문작성과정 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간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개인이나 공동의 연구공간이 전혀 없고 세미나실을 과방으로 쓰거나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이용하는 것은 우리학교 대학원 외에는 없다.

한편,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된 각 과의 소견서를 취합, 내년 2

백인자 생존을 위한 ‘자주선언’

▲이승우와 ‘개미와 배짱’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우화는 개미처럼 사계절 열심히 일을 하면 편히 살 수 있지만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면 굶어죽는다는 교훈을 준다.

현실이 이 교훈처럼 단순하기만 하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일반 민중들이 겪을 배짱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현실에서 ‘개미와 배짱’의 교훈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구조 자체의 보이지 않는 힘이 기로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도수를 명확히 꿰뚫어 보고 분노하며 언제나 최전두에서 투쟁해 온 역사가 바로 한국학생운동의 역사다. 일제시대 광주학생 운동, 60년 4·19,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민주항쟁 등 어느 누구도 투쟁한 한국학생운동의 정당성과 성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총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틀러서고 감동유망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과를 거두어 한국학생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백민학생과 자주적 박진규군이 선언한 ‘7기 한총련 자주선언’의 내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중심으로 고민해야한다.

▲‘노동학생운동’의 장점은 장경의 반농민 정책으로, 빈민들은 마지막 생존수단마저도 도시의 미관을 이유로 하는 장경의 탄압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졸업이 곧 실업을 의미하는 예비실업자로 전락해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상실하고 있다. 이에 자주, 민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뜨겁게 온몸을 내던져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서울대 사회학과 대 학생회장 당선자 박진규군이 선언한 ‘7기 한총련 자주선언’의 내용이 다. 99년 학생회장 당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7기 한총련 자주선언’은 ‘IMF 재협상’ 정리에 반대 ‘정쟁연속 중단’ ‘주한미군 철거’ ‘한일공통선언과 한일어업협정 국회비준 거부’ ‘황선 학생 석방 및 북한과 자유왕래 전면개방’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선언은 한총련 백민학생이 개미와 배짱의 교훈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소망을 담은 밑거름이다. 우리가 직접 쓴 대표자들의 ‘자주선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며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한총련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아닐까?

김민석

월경 교육백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백운경기자

시

임

수습기자
김도홍(사회과학계열 1)
정효진(인문대학 1)

외대학보

주간인사

이만주 72회(12월)간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외대학보는 중단됩니다. 다음 신문은 99년 1월 첫째주 ‘외대 학술·문학상’ 특집으로 발간됩니다.

외대학보

발행비

7600원 학생회비 선거 투표용 6400원 → 8000원
8000원 사용자대상기 이태규(사번이 2) → 이태규(사번이 2) 후원자(연회비 1인대)에 성대. 사법대 지원금 후원-김성민 후보
상장(사번이 2) 7월-8월 20일

외대학보

외대 학생들의 마음속엔
외대 학생들의 마음속엔

발가죽이 달았다

외대 학생들의 마음속엔
외대 학생들의 마음속엔

때묻지 않은 순수함
갖 태어난 아기의 모습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대학인의 모습입니다

외대학술상·문학상의 정신입니다
36화·16회를 거듭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모집부문
문학상 - 시·소설·수필·비평
학술상 - 인문·사회·자연과학

상금
당선작 - 40만원
가작 - 20만원

마감 12월 21일(월)

문의
서울 - 학생회관 2층
961-4466, 4152
통인 - 학생회관 2층
0335-33-4152, 4580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평가

‘불신’에서 ‘희망’으로
재단투쟁과정 ‘대학운영위’ 건설 투쟁 통해 전환점 마련

7천의 품, 백만과 함께 19대 총학생회가 내전 슬로건이다. 이는 총학생회 사업을 용인배움터 7000 학생의 의지를 모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백만 학생들과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실제로 총학생회장 고희철(인문·언어 4, 재학)은 선거공약에서 밝힌대로 6기 한총련 의장으로 출마하며, 1월부터 전국 각 대학 학생회를 찾아 다녔고 ‘한총련 사수학신’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희철 군은 “한총련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뜻을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우리학교에 있어 가장 크게 터진 사건은 당연히 ‘재단 투쟁’이다. 이제는 정리 단계에 접어들어 ‘재단 투쟁’, 이 투쟁에서 총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아무도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 시기는 정말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대로 두지 않을 수 없기에 이후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방안을 고민했다”는 총학생회 어는 중앙운영위(중운위)는 당시 총학생회의 재단투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총학생회는 재단투쟁과정에서 몇가지 오류를 범했는데 첫째, 재단 투쟁을 늦게 시작했다. 재단투쟁의 시작이 1월 초 이숙경 전 재단 이사장의 발언에서 비롯됐음에도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달리 1월 중순이 되어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본격적으로 투쟁을 준비하게 됐다. 물론 여기서 총학생회 집행본부들의 숫자 부족과 경험이 많지 않은 건부도 있었음은 전제치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재단 투쟁 방식에 있어 총학생회 중운위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들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즉, 선전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는 학생들에게 ‘우리 배움터 총학생회 재단투쟁 안하노라’ 식의 말들이 무성하게 하는 등 총학생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셋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함께 연대투쟁 하지 않았다. 이는 1학기 정기학생총회 자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 건부들의 발언을 듣고 어는 학생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 총학생회와 연대하기 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써 양 총학생회가 오히려 불신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올해 총학생회는 2학기 개강을 기점으로 재단투쟁을 더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 학원자주화평등특별위원회(학자특위)를 건설하고 집행부를 인선하는 등 많은 작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2학기 가장 핵심적인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낼 수 있었다. 특히 대학운영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올바른 대학운영위상을 모색해 갔으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수차례 있었다. 또 공청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운영위 건설 참여를 호소하였다. 또 10월에는 ‘올바른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을 위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인선농성’을 벌이며 대한민국의 ‘대학운영위 인선 사심’ 학생들의 생각이 거의 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임을 선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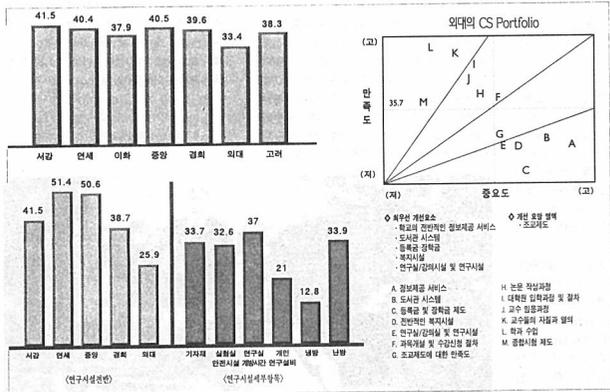
이와 함께 ‘올바른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을 위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인선농성’ 단장을 맡았던 20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당선자 신동현(통구·항기외 3)군은 “1학기의 재단투쟁을 서울배움터 총학이 중심이 되 벌였다면, 2학기의 ‘대학운영위’ 건설을 위한 투쟁은 용인배움터를 중심으로 그 올바른 상이 접근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대학운영위 건설을 위해 많은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되는 줄 알면서... 남게 추위지면서 안의형사여 불을 비우는 일이 찾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선거기간중 서울배움터 분돈광장에서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장작을 태우며 불을 끄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소극용도가 아닌 쓰레기통이 쉽게 그물러 보인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임승희 기자

대 학교육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도서관 · 교수자질부문 최하위



용인, 시청각 교육원 자료 양·질 모두 떨어져
대학당국 자료추가 의지 없어

용인배움터 시청각교육원 자료가 서울배움터에 비해 종류와 수량이 크게 적고 시시성 또한 뒤처지는 등 편차에 심해 이용률이 여전히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시청각교육원 조사결과(비어문제 자료 제외)에 따르면 용인배움터에 비해 서울배움터는 오디오 자료의 경우, 종류가 3배, 수량이 2배이며 비디오 자료 또한 종류 2배, 수량이 1.4배가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인당 자료수가 서울배움터는 약 57인 반면, 용인배움터는 약 3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용인배움터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는 양적인 면 외에 질적으로 뒤떨어지는 지적도 있다. 이는 서울배움터와 달리 용인배움터 자료의 제작년도가 80년대까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전공관련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실용적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심수승(통학·마인어 2)군의 지적처럼 다양하고 실용적인 지역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청각 자료는 대부분 학생들의 자료 신청에 따라 구비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배움터 학생들의 신청건수는 1년에 2백 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용인배움터의 경우, 신청건수가 적다. 이와 관련된 시청각연구원 임재천(46)씨는 “학생들이 자료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별의를 갖고 신청을 하면 알아든지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시청각교육원의 자료부족은 학생들의 자료신청에만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다수의 학생들은 자료신청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시청각교육원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이 극히 낮다. 그러므로 대학당국은 시청각교육원

우리학교를 포함한 9개 사립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대학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학교 대학원의 문제는 표에서도 드러나듯 △도서관 △등록금 및 장학금 △복지시설 △연구시설 △정보제공 서비스 등 대학당국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종합만족도에서 ‘떨어’를 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제공, 도서관, 등록금 및 장학금 제도, 복지 등이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분별로도 최하위를 기록한 항목이 많았고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 항목의 경우 타대학과의 편차가 미미했다.

등록금 및 장학금
다른 대학들에서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항목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100점 만점에서 겨우 17.6점으로, 학생들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조사를 준비한 사강대 대학원측의 분석에 따르면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의 서비스 전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 봐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만족도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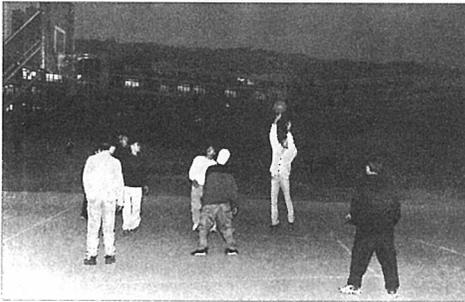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연세대(23점)의 경우 등록금 총액이 타대학에 비해 높지만 만족도면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학교 대학원생들은 교육 및 행정서비스의 질에 비해 43%인만큼은 등록금 총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세부항목 중 ‘논문발행의 등록금 정책’의 타당성(7.7점)은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 장학금을 받을 기회에 대한 만족도 19점으로 연세대(27점), 사강대(22점), 경희대 수(20점)보다 낮았다.

체 육분과 동아리들의 바에

체육 동아리들의 '고난의 행군'

좋은 성적 거두지만 학교 측의 지원 미비... 공간 문제 가장 심각



공간 부족 문제로 체육동아리들은 주민과의 마찰, 안전사고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배움터 야구부가 경인지역 추계 아마추어 야구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모두 3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 야구부가 중

는 동아리 회원 2~30명의 절반도 들어가지 못했다. 코트 하나 가지고 복식 1개조, 4명밖에 시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관련 동아리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후 야구부는 대하원 대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항상 연습을 한다(운동장 이용시간은 체육분과 동아리 사이에 조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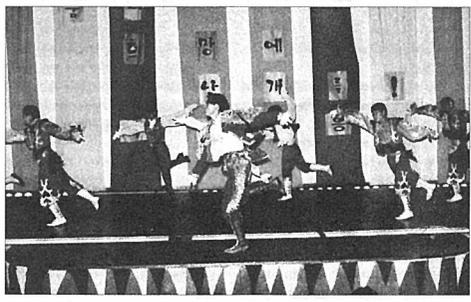
생활 시평

작은 실천이 빛난다

'크리스마스 씰'. 아마 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창 시절 이맘때쯤 걸학원자를 돕기 위해 팔았던 것으로, 정겨운 사람됨에 보낸 단 키드나 연하장에 우표와 함께 살짝 붙였던 기억이 난다.

주목! 용인 배움터 응원단 탄생

함께하는 몸짓, 하나되는 우리



지난 6일에 있었던 프랑스 월드컵에서 대표팀인유니 주먹을 펼친던 붉은 악마 응원단. 그들은 같은 옷을 맞춰 입고 같은 노래와 동작을 함께 하며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우선 '체대도 없는 우리 학교에 응원단이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이에 현군은, "응원은 단지 운동경기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학교 행사나 있을 때를 위해 응원단이나 노래 공연하는 것처럼, 응원원 학생들이 학교

<15>미국인의 종교와 의식구조 II



할로윈에 비친 관용성

원자기 처음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10월 중순이 되자 수퍼마켓이나 장난감 가게에서 특별하게 꾸민 복장을 팔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새로 나온 귀신 복장을 요란하게 선전하였다. 말로만 들은 할로윈(Halloween) 시즌이었다. 본인도 미국 친구의 설명을 들어가며 사들여 집에다 초박 램프(Lack-o-Lantern)를 달고 사탕을 준비하였다. 10월 31일이 되자 동네에 그가야말로 절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마을(?)이 되었다. 어른들도 기어 있었지만 특히 동네 아이들의 청소년들은 모두 귀신 복장을 하고 때를 지어 각 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내가 살던 집에도 그날 밤 그런 친구들이 아이를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나한테 "속올래 나한테 한턱내래(Trick or Treat)라고 외쳤다. 사탕 몇 개 주는 것을 헌대라고 생각하는 귀신들에게 나는 그날 밤 즐거운 마음으로 한턱을 내었다.

Advertisement for '생각달팽이' (Thinking Snail) featuring various books and CDs. Includes titles like '산에는 꽃이 피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and '98 한국현대 미술전'. A schedule for '독립영화제' is also provided.

Table with two main sections: '서울배움터' (Seoul Baemuteo) and '용인배움터' (Yongin Baemuteo). Each section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for '구분' (Category), '요일' (Day), '아침' (Morning), '점심' (Lunch), '저녁' (Evening), '대학원생' (Graduate), and '일요일' (Sunday). It lists various courses and their fees.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 특별기고 : 수필 '슬픈 포승줄'



“민주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삶에 역사는 패배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내심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여기에 개진하려 하는 나의 내심을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근거로 삼아 나의 신체를 구급해 놓을 권리를 내릴 권한은 당신들에게는 없다. 나의 내심을 삼킬 할 권한이 없는 당신들에게 내가 나의 내심을 고백해야 하는 분명한 모순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감히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내가 한낱 ‘처분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 서준식, '나의 주장' 중에서

분개 물들어 있던 정계산 자락이 어느새 앙상한 나무들만 남아있었다. 그해 겨울은 그렇게 창세신의 변화와 함께 다가왔다. 운동시간이 되면 나는 하얗고 눈더민 담배라에 기대서 창세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했다.

고향집 앞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될 때 어머니는 절망의 눈빛으로 나를 떠나 보냈다. 가을비가 주저앉은 어머니의 옷을 적시고 있었고 나는 자주 뒤돌아보며 승용차에 강제 로 태워졌다. 나의 몇 년간의 수배생활이 어머니의 병을 악화시켰으리라. 집에 가면 인연 다는 친구들의 만류와 무릅쓰고 내가 고향을 찾은 것은 어머니가 지중암 수소를 해안한다 는 누나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다.

그해 봄날 신촌은 인기가 자욱했다. 최후단 연기가 사라질 날이 있었으며 정국도 한치 않을 내다볼 수 없는 정경이었다. 명지대 학생

김경태 열사가 죽고 그 당시 전대협 문화국장 이었던 나는 그로부터 세 번의 징계처리를 지켰 고 수많은 집회와 가두투쟁을 준비했다. 그때 부터 시작된 검거열풍은 이후 전대협이 편양 죽전에 대표로 보내 박성희, 성용승 방북사건 의 의해 많은 친구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 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그렇게 연행되어 안기부에서 21일 동안 수사를 받고 서울구치 소에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 버스에 올라갔 을 때 버스 뒤쪽에 붙은 포승줄을 맨 사람이 보였다(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붉은 포승 줄을, 조직폭력배는 검은 포승줄을, 그리고 죄 목마다 노란 포승줄, 파란 포승줄이 있고 집 시법 등 일반범은 하얀색 포승줄을 맨다). 나 는 슬쩍 그 사람의 걸로 자리를 잡았다.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나 의 붉은 포승줄을 보더니 다시 금강산 표정을 지었다.

“무슨 사건이세요?” 나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만 니던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도 없이 귀를 쫓긋했다. “자노랭이예요?” 당시 우리 전대협 관련자 들 말고도 서울구치소에 반노랭 등 남한사 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자들이 많이 있었고 민기협(민족미술인협회) 사건 관련 자들과 강릉대 투쟁을 이끌었던 대학위원회 어원복과 범민족대회와 관련된 홍근주 목사

님, 조성우 선배 등이 사용마다 가득했다. 나 는 여타의 관련자들과는 그러저러 인연이 있었는데, 사노맹 관련자들은 잘 알지 못했으 로 당연히 그러리라는 듯 웃었던 것이다. 그 런데 그 사람의 말은 나의 예상을 비웃고 말 았다.

“간첩이요. 그쪽도?” 간첩이라니, 암전한 학자중에 그 사람의 용 모는 간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단 정했고 물론 간첩이 얼굴에 간첩이라고 쓰고 다닐리아 없겠지만 그래도 간첩이라면 조금은 단호한 신념과 결의의 표정이 얼굴에 배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무 척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나까지 간첩이라니. “아니 제가 무슨 간첩이요? 어떤……” “재일 유학생이요.”

내 황당할 틈을에 그 사람은 무덤덤하게 대 답했다. 그리고는 처음의 반개은 표정과 는 달 리 슬픈 표정으로 침묵을 유지했다. 차는 구 치소의 옥중편 문을 벗어나 인양사거리 쪽으 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유명한 사승, 서준식 형제의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떠올리며 이 사람에게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나와 같은 시기에 서울구치소에 송치된 연 으로 그 후로도 몇 번 검찰조사를 위해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검찰조사를 기다리 며 대기하는 경찰청의 까치방에서의 통문을 통해 전해들은 그의 사연은 이랬다. “나보다 다섯 살이 연애인 그 형은 사실 연

동국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구치소에 와 서도 특별 격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운동권 구 속자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나를 처음 만나서도 반가움보다 먼저 의아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가 만 난 최초의 운동권 학생이기도 했다.

사건은 그가 유학하고 있는 동맹에 친구가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외로운 유학생 할 중에 친구의 방문에 불려 그 형은 친구와 함께 동맹의 여거지기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했고 주로 여러 대학을 다니는 중에 조종현 형 의 대학도 관광을 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형의 친구는 그 때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의 필름을 돌아올 때 가져왔고 동네의 사진관 에 그 필름을 맡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 에서 발생했다.

신고정신이 투철했던 사진관 아저씨는 인화 된 사진을 살펴본 뒤에 배경 멀리 김일성의 초상화를 발견했고 즉시 113에 신고했던 것이 다. 그리고 형은 추석을 앞둔 귀국길에 공항 에서 즉시 연행되었으며 형이 참가하고 있던 일선 유학생들의 작은 역사학습 모임은 급작 스레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젖어있던 형은 따뜻한 조국의 품 안에서 그렇게 차가운 감옥 으로 보내졌다. 어떠한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의 반쪽 조국인 북한을 이롭게 했 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묶여 한 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형과 같이 행방불명 경우가 기실은 어찌오 늘의 일이 아니다. 사슬려린 유신의 폭압속에 인화단의 선배들이 신고가 무척 쉽게 함장의 이 술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으며 국가의 원수 를 옥했다든 이유로 구속되었던 ‘막걸리 보안 법’의 시련은 지금보다 더 엄厲했던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법으로 묶고 있다는 것 이 아닐까. 한 개인이나 세력에 있어서 양심 과 신념의 문제는 결코 법으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사회와 나라의 정도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다양한 가능성은 어느 특정한 또는 특정세력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오직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헌명한 지혜와 용의에 의해 관타되어지고 선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상황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 해 중에서도 나는 인간의 정신을 반쪽으로 규 정하고 상상력조차 반쪽으로 만든 폐해가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한다



신고정신이 투철했던 사진관 아저씨는 인화된 사진을 살펴본 뒤에 배경 멀리 김일성의 초상화를 발견했고 즉시 113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형은 추석을 앞둔 귀국길에 공항에서 즉시 연행되었으며 형이 참가하고 있던 일선 유학생들의 작은 역사학습 모임은 급작스레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한 억압의 문제라 생각이 들면 단 하루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아픔다운 침묵을 감옥안에 보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것이 분단된 국가의 한 개인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당 연히 분단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을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 겨울 내내 나라에 반역한 아들을 듣 어 머니는 수소를 뒤로 미루고 몇 때안 조카를 업고 하루를 말다하고 구치소로 면회를 오셨 다.

“오늘은 누나네가 이사했다. 내일은 아저지 재식남인데 잊지 말고 오세요?”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하우후루 살아가는 일상을 내게 전해주고 갔다. 나의 신념과 가치는 그 어머니에게 슬픔을 안겨주어안만 하는 것일까. 그 형의 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절망스러울 것인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하루 하루 아픔다운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 야기인가.

법이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이라는 굴레에서 신음하는 사 람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인간에 대한 무한

한 사랑, 참다운 정의를 이 땅 구석구석 실현 시키려는 열원은 법으로 평가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나는 그 해 겨울 구치소의 차가 운 바다에 앉아 ‘외로운 저항’이라는 서준식 씨의 투쟁사를 읽으며 우리들의 사슬로 존재 하고 있었던 인연과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국 가보안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서준식씨는 1971년 4월 그 형 서준식씨와 함께 ‘모국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1978년 5월 26일 형기를 마쳤으나 사회안전법의 적용으로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석방되지 못하고 다섯 번의 보안감호처분으로 계속된 옥살이 중 6월형의 승리 속에서 석방되었다. 서준 식씨의 절규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통일조국의 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우리 들 희망의 표현이다.

“나는 나의 이 비할 데 없이 강한 입각점에 굳건히 서서 당신들에게 ‘필부의 뜻’이아닐모 배양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끝없이 강한 이 입각점에서 서서 확신한다. 패소해도 패소해도 또 패소해도 역사는 결코 서준식의 패배를 선고하지 않을 것임을!”

신동호 (사민, 민족통일작기회의 청년위원장)

대우가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http://www.daewoo.co.kr/

지금 대우 홈페이지를 접속하세요

대졸 인턴사원 공개모집

- 1. 모집인원 : 2,000명**
 - 1차 모집 : '98년 12월
 - 국내 : 6개팀 (실습전 집체교육기간 포함)
 - 국외 : 1년 (실습전 집체교육기간 포함)
- 2. 실습기간**
 -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99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 방역일 또는 면제자
 - '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는 '69년 1월 1일 이후)
 - 해외여행에 걸려서자가 없는 자
- 3.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99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 방역일 또는 면제자
 - '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는 '69년 1월 1일 이후)
 - 해외여행에 걸려서자가 없는 자
- 4.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일정 통보)
- 5. 지원 및 접수**
 - 지원방법 : 인터넷 접수에 한함
 - 접수기간 : '98년 12월 5일(토) 09:00 ~ 12월 10일(목) 18:00
 - 대우인턴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aewoo.co.kr/
-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8년 12월 21일(수) 이후 인터넷 대우홈페이지에 게재
- 7. 기타**
 - 모집된 재원사원은 인터넷 대우 홈페이지(인턴지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실습 종료 후 성적우수자는 정규직원으로 채용합니다.
 - 성적중생성, 사선, 외국어시험성적표 및 자기소개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래는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처)에 따라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외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는 대우으로부터 인턴 증시확인서 등 발급없이 면접전형시 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해외대학 졸업(예정)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02) 759-3525 / 3541

MF사태, 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부담 해결방안 없나

사교육비 부담 교육재정 GNP 6% 확보로 해결가능

등록금 동결의 허구성 ...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구체적 대안 제시돼야



노동자보다 연간 소득이 적은 농민들 역시 비슷하거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노동자나 농민들은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IMF이전과 똑같은 액수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1GNP 6% 교육재정 확보 공약 박치기와 교육예산 삭축 어려움 때문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미국, 독일 등도 공약이 다졌

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에 이르러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경선전, 문화상, 한겨레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자신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약속했던 GN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라는 공약조차 IMF관리체제를 핑계로 백지화하고 있다. 그래서 99년도 정부 예산이 4.6% 증가하고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187만8,000원)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은 오히려 5.1% 삭감(16조 5832억)했다. 이에 따라 설정된 99년 교육예산 편성방향은 △그간 교육투자자 GNP 5%투자계획(96~98년에 따라 양적 확충에 집중)을 내년에는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두고 △세제개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지방의 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1차년도 예산 2,000억원의 반영과 대학연방비 시설투자 등을 축소한다고 했다.

반면 김대중 정권은 "세계는 냉전체제가 해체 되고 치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고 말하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의 13조 8,000억원에서 거의 동결된 13조 74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김대중정권이 지난 정권과 달리 "연방화해와 함께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분기기를 형성하겠다"는 대북정책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한편 김대중 정권은 주먹밥 조세구조를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주택, 교통세, 담배세 등에 부과된 목적세(특수한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 성격의 교육세를 2000년부터 본세에 통

합시키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교육세 부담은 계속되면서 징수된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간지가 지난해 폐지되고 폐지는 목적세를 영구적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결국 교육세를 빚자해 국민세금은 늘리고 국민들이 교육에 투자하려고 낸 세금조차 다른 곳에 유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학점영·과목당 등록금 차등화와 개별 차등 등록

김대중 정권은,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수혜자는 사회전체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이 교육의 수혜자를 학생으로 국한시킨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등록금 고을 인상을 부채질했던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4. 서민에게 고문주지 않는 교육재정 증액방안 만들어야

민족대학건설과 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여부도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IMF체제하에 교육재정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인연이다.

그러나 이것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별을 재조정하면 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방부가 5329억원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국방예산을 재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국민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민사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98년에 3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을 폐지하는 한편, 주한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기지부 개발,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만이 서민들에게 진기하기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교육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본래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이에 폐지되고 소득에 따른 '직접누진제' 방식을 취하면 된다.

또한 수혜자 부담원칙,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국고보조금의 대폭 축소, 차등지원정책, 대학개방, 민족정체 조산원칙 추진, 국공립대 특수인원 등 서민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정책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

과외로 한 '국립대 특별계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정권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선정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함으로써 등록금 고을인상을 부채질해온 '내외종합평가인정제'도 김대중정권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중정권은 특히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대, 연·고대, 경북대, 수도권 국공립 대학을 '내외형 중심대학'으로 정형하고 지방 대학은 8~10개를 이끔형 중심의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함으로써 대학들이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학생등록금을 고액인상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4. 서민에게 고문주지 않는 교육재정 증액방안 만들어야

민족대학건설과 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여부도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IMF체제하에 교육재정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인연이다.

그러나 이것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별을 재조정하면 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방부가 5329억원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국방예산을 재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국민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민사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98년에 3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을 폐지하는 한편, 주한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기지부 개발,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만이 서민들에게 진기하기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교육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본래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이에 폐지되고 소득에 따른 '직접누진제' 방식을 취하면 된다.

또한 수혜자 부담원칙,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국고보조금의 대폭 축소, 차등지원정책, 대학개방, 민족정체 조산원칙 추진, 국공립대 특수인원 등 서민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정책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

김상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대학 서열제

0...얼마 전, 한국대학원총학생회 대표자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원 서비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학교가 꼴찌를 했다...이에 그 비싼 등록금 이했다고 훗날이 따진 우리 열매에게 대학 당국 앞, "대학 서열제가 교육을 망친다", 행복은 만족도순이 아니냐"고 라고 하더라. (김)

0...서울지역 학생 400명이 IMF 경제실태조사 1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고통을 겪었던 미국, 그 나라의 대통령, 관련된 영상을 한 하수비로 화형식을 진행하려는 순간, 민족과 국가를 너무나 사랑 하는 정경호 10명이 달려오더니 하수비를 학생들에게서 떼어 가져다, 직접 불을 밝히는 부채질하는 것이다. 알마나 '월턴, 미국'을 증오했는가. 정산조각이 바 버린 하수비야. 정말로 속 시원하다! (석)



0...북이는 '혼자서도 잘한다' 어린이였거든. 그래서 인공위성도 혼자서 만들어 하늘에 날려 보았어. 근데 날리는 혼자가 해수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미국 이가 시키는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거지. 남이는 미국에는 갖고 놀지도 않는 북이 미사일 장난감만 갖고 놀다가 북이 탄핵당하고 미 사람이 잘못 쓴거지. 엄한 동생 사람만 다쳐대지 뭐야.이러하는 우리 남이 언제 철하겠어? (승)

0...뛰어난 소설가로 촉망받는 한 작가, 어느날 조선일보에서 스카웃제까지 들어왔는데... "다른 뛰어난 기자들도 많았든 데 왜 내일 소설가인 나를 원할 거죠?" "우리는 취재를 하고 쓰는 기자가 거의 없잖아. 진보적인 인사를 몇몇을 뽑아 그들을 예뻐·비방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진실인양 유포하는 것이죠. 민족정체 조산원칙 기자의 취재 능력보다는 소설가 기질이 강해 합니다." (김)

소셜쓰는 기자

1. 교육재정 확보는 민족대학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

경제실태조사에 일관하지는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지 1년이 했지만 아직까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50년간 외국자본에만 의존한 채 자립적 토대 없이 기형적 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지식인의 입문란 바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박사인력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는 나라를 맡긴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1,000원에 가깝게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정부 홍보성이다. 비판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IMF실태조사를 극복하고 이제 세계 속의 통일된 선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인재를 양성할 '민족대학'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은 당면한 제정이다.

2. 갈수록 높아 가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시설 및 설비가 열악한 것이 없다. 도서관 장서수만 보더라도 96년 현재 전국대학을 통틀어 4,300만권에 불과한데, 하버드대에서만 1,200만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루어 볼 때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열악한 것은 교육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복무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재정 확보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가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더구나 그 때문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고 그 규모가 공교육비보다 큰 20조원에 이르게 됐다.

특히 사립대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그 부담은 해마다 폭증해 왔다.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사립대들이 해마다 10~17%까지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90년에서 97년까지 연평균 소비자 물가 인상을 5.8%보다 2~3배 높은 것이며 연평균 10%수준이었던 대학교 직원 인건비 인상률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고율의 사립대 등록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96년 기준으로 사립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농민들은 연간소득 1,635만원의 31.6%~37.5%, 도시노동자는 연간소득 2042만원 가운데 26.2%~31.1%를 자녀 1명의 연간 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IMF관리체제 이후 더욱 늘어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98년에 사립대들이 등록금폭등을 동결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IMF로 인해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도시노동자는 명목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증산율은 평균이고 빈이 빈 부유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비둘기철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뛰어난 철학과 예술이 곁입니다. -정하기가

· 모헌학사 운영과에서 99학년도 모헌학사생을 모집합니다. 기간: 18일(금)까지 제출서류: 입사원서, 주민등록번호, 성적증명서 각각 1장, 증명사진 3장

선발기준: 학업성적, 통학거리, 실적지자녀, 가계곤란자, 신체부자유자

문의: 운영과 (0335) 330-4102~3 (모헌학사 운영과)

○말입니다

· 98년 선배남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구요, 착한 우리 노어인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언니들, 오빠들, 동기를 무지 사랑해요. (정말 행복했던 노어과 98학번)

· 영희연구회 '물방'이 영화제를 합니다. 부제는 컴플렉스를 떠나는 세기 (이태유로기, 성, 죽음) 시선. 곳: 대학원 소극장(6104) 일정: 7일(월) 이태유로기 1사·인계마을 3사·상당공정 소극장 5사·비하너 호연의 야근 배대부 8일(화) 성 1사·침묵에 관한 9월 3사·마타도르 5사·지푸라기 게 9일(수) 죽음

○말입니다

· 학생회장 선거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인도와 학우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다들 잘 보실겁니다. (하나되어 외치는 중심선언 13대 인도어과 학생회 학생회장 김성사)

3사·제 7의 불인 5사·베니스에서 죽다 · 러시아어과 졸업생 환영회 합니다. 곳: 9월(수) 늦은 5시 30분 때: 하늘루프 (제 9대 러시아어과 학생회)

○모입니다

· 과방 도서관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과방에 있는 책들과 비품을 관리할 학우를 모집하거든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됩니다. 책임지고, 과사업에 종사할 관리를 가지실 분은 어서 지원하십시오. (11대 전진 러시아어과 학생회)

○축하합니다

· 축하합니다. 이태리어나의 새로운 과회장이 탄생하였습니다. 총재직 인원 118명에 투표인원 82명중 반대 1명을 제외한 119표 찬성으로 97학번 이윤재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이태리어나 학우 일동)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장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장 2층 (0335)30-4112, 4580

용인 총여학생회 및 자연대 선거 치러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재선거 및 자연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2일(수)부터 3일(목)까지 양일간 각 건물 로비에서, 2일(수) 자연대에서 각각 치러졌다.

총여학생 투표결과와 기호1번 안은성(사학·영어 3)·박민정(동학·아랍 1)호가 기호2번 권지연(자연·미생물 2)·박미영(사학·이태리어 2)호와 25표 차이로 당선됐다.

안은성·박민정호는 선거인원 3014명 중 146표가 투표, 47.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825표(57.4%)를 얻어 당선된 것이다. 이는 지난 25일(수)부터

26일(목) 양일간 치러졌던 총여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13.3%나 낮았다.

이날 총여학생회장 당선자 안은성은 "총여학생회 일은 처음이고 여성들 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총여학생회를 열심히 꾸려나갔겠다"며 "그 동안 총여학생회를 이끌어왔던 기호2번 운동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대학학생회장선거에서는 김승현(외국 3)군이 단독 출마에 재적인원 95표 중 48표 투표, 50.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417표 86.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사회대, 학과 설명회 열어

사회과학대학은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과학계열학생을 위한 학과설명회를 지난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사회과학관에서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과대표, 교수님들이 나와 과의 전반적인 특성과 성격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있었으며 신학과 학과

설명회의 경우 심습실도 둘러보았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 학생들은 준비한 신학과 학생 강연내용은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사회대에서 과에 대한 선택을 돕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동문기업인 초청 간담회

우리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동문기업인 초청간담회'가 지난 25일(수) 롯데호텔에서 취업정보센터 주최로 열렸다.

총장, 동문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는 외국어교육의 특수성

살린 외대 발전방안, 동문들이 도움될 수 있는 취업정보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의 결과 금번을 시작으로 교수, 동문기업인, 학부무는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안전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용인, 동연분과장 선거 실시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선거가 7일부터 동아리연합회실에서 각각 실시됐다.

우선 오늘(7일)은 매체분과장과 의과 5시 30분에는 연행분과장, 학술 1분과장, 봉사분과장 선거가 각각 5시 30분, 6

시, 5시 30분부터 진행됐다.

9일에는 마지막으로 종래분과장 선거가 5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입후보자는 4학기이상 등록을 마친 분과내 동아리 회원으로 입후보지원서, 추천서, 재학생증사서 등 동아리 연합회실 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용인, 동연 임시대표자회의 진행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는 9일(수) 오후 6시 30분 동아리연합회실에서 일시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인회 및 분과

장소개 △사회적 개정 △분과 조정 등이 안건으로 논의되며 2학기 예정산인역은 서면을 제출했다.

서울, 서반어과 확대운영 열려

서울배움터 서반어과는 지난 2일(토) 학내운영위원회를 열고 과소모임에 대해 논의했다. 과회장, 각 동아리 회장, 학내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에는 과소모임지원금배분에 관한 문제, 동아리장들의 과학생회 적극 참

여문제들이 논의됐다. 노래대 대영은 과 내은 조승우(1)군은 "과학생회가 비전 관계로 과제제치 지원에 각 소모임들의 단결 도모에 도움이 되었다" 평가했다.

통역협회 동계외국어 강좌 신청접수

통역협회는 '33회 동계 외국어 강좌' 신청을 14일(월)부터 다음달 1일(월)까지 받는다.

내년 1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열리는 강좌는 통역협회회원 10명까지 나와 하루 5시간 20분간 자체제작한 교재로 진행된다.

강좌료는 영어·일본어·서반어아가 4만원, 이탈리아·러시아어·아랍어·포르투갈어는 5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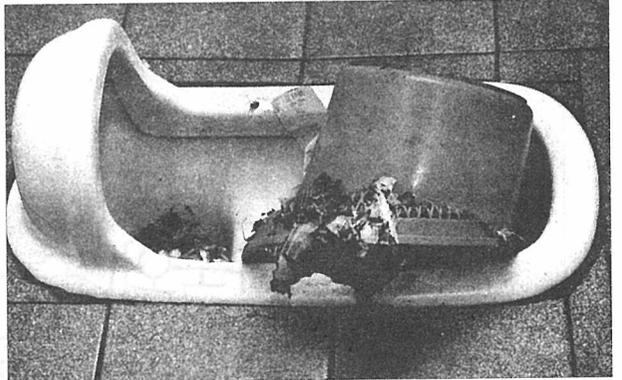
이외에도 수강인원이 5명이상일때는 취소료 0원이다.

우리학교 직장 예비군연대 우수부대 선정

우리 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가 지난 11일(수)에 실시한 대하직장 예비군부대 경쟁력평가 우수부대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실시된 정기평점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교육참여율이 91.6%에 이르는 등 각 부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부대 우수부대로 선정되었다.



화장실 불조심

서울배움터 도서관 4층 외화장에서 화재사건이 있었다. 다 타지 않은 담배재가 쓰레기통 후면에 붙어있는 작은 불이 난 것이다. 쓰레기통에 붙어 불이 확산하면서 쓰레기통을 넘어 급한 불을 고르고 있던 것 같다고 도서관 직원들이 말했다. 도서관 관리실에 따르면, 연막의 강제로 방화가 이뤄진 것임을 밝힌 뒤는 공사를 해야 한다며 휴업을 화장실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해를 거듭했다.

서울, 학부의 학생수첩 판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에서 12월 17일경부터 학생수첩(다이어리)을 교수회와 1층 기념품점에서 판매했다.

보통 3월달에 나오는 학생수첩은 올해 3월 학생수첩이 나오지 못한 관계로 홍보차원에서 12월에 나오게 되었으며 가격은 2500원이다.

용인 맞도습, '98세컨던 테입판매

민족영화 및 도서에서 '98세컨던테입을 약관 311호에서 11월 중순부터 판매중이다.

테입은 모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140분 분량에 가깝게는 합쳐 1만이다.

3년 만에 과학생회 건설하는 경영학과 학생회장 응승운군을 만나

"과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면 합니다"

이사람

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경대 경영학과 11대 학생회장 당선인 응승운(2)군은 과학생회 건설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사실 경영학과는 96년 이후 과학생회가 존재하지 않아 상경대 학생회에서 과학생회 역할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3년만에 과학생회장이 선출됐으니 그 의미는 사뭇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회가 '없었다'고 해서 생기는 폐단은 "제대 정기간 해도 복작대던 과장이 할머리로 생겼었다"는 것. "지나가는 저 교수님이 우리과 교수님인지도 모르고, 자기 과 선후배가 누구지도 모른다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설명하는 응승운은 과학생회장이 될 것을 결심한 이유로도 과 학생들이다. 계열체의 영향도 컸지만 과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더더욱은 경영학과 20년간을 맞아오는 과학생회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위 선후배들

의 권유도 원동력이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과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및, 소모임과 학회 활성화를 꾀했으며 경영학과 20주년 기념행사도 강연에도 열었다고 말했다.

주위의 반응에 대해서는 속스러운 듯 웃으며, "선배들의 격려와 따주며 힘을 주는 후배들이 큰 힘이 된다"고 한다. 덧붙여 "경영부가 5.6명 정도 필요하다"며 "선배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경대 3개과의 동맹집단을 형성하고 앞으로 단과과 학생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부족한 사람을년간 한 한 책임질 지리에 믿고 맡겨주면 안 된다. 능력이 미치지 않으면 믿고 뽑아준다는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확고 웃으며 말을 마쳤다.

김도훈 수습기자

서울

동아리연합회 이성대(영어 2)
이성대군은 올해 중심활동중 '21년'에 이어 분과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곳은 '동아리 연합회'라는 뜻이 담긴 개성체들이 만나서 화합하면 '21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동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각 동아리에 지급되는 교비에 대해 동아리에서 전하 모른다'며 동아리간의 조율을 위해서도 교비지급의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의 각오는 끝없는 심도에서 '15대 동아리'라는 큰 꿈을 받아 부단수정하며 가치인 '길'을 향해 '21년'으로 끝까지 걸을 것이라고 했다"며 포부를 밝혔다.

사회대 학생회장 김은현(신학 3)
"다시금고 반대표가 많았는데 이분의 의견까지 수렴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꺼내는 김은현군은 중심과외인 경영학 문제에 이르기 "몇 년간의 시행을 통해 경영학이 학원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제 사회대에 여러 활동들이 증가하고 위치가 되었다"며 책임감을 느끼는 말을 하면서 "내년 학생회 임기가 1년간 후회없이 살았으면 한다"는 소망을 잊지 않았다.

사대 학생회장 박영준(영어 2)

가장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사대 학생회장 박영준(영어 2)군은 "학우들은 날아갈 것 같았으나 이제 는 앞으로의 활동에 부담감이 느껴진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군은 내년 사대만의 활동방향에 대해 "평가인정제로 사대개가 없어진 위기에 있으므로 사대개에 관련된 투쟁 중심으로 나가겠다"면서 대국적으로 모든 투쟁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함을 밝혔다.

박군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내걸기 보다는 1년간 무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며 대담한 자세를 보였다.

상경대 학생회장 구준호(무역 3)

98년 상경대 3개과를 유원한 과학생회장으로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무역학과 학생회장'으로 이름을 알린 구준호군은 "그간 느꼈던 문제의식을 극복하고 싶고 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며 "조기이 모여 출중함 그리고 높은 퍼포먼스 개개인이 분취자 완성되는 상경대 학생회를 지향한다"고 설명한 '조각 맞추기'라는 기치를 선포하기 위해 소모임 원장화, 전공화화 건설을 주력할 생각이다.

동대 학생회장 권영순(연도 2)

권영순군은 중심 사기였던 '마주보

과 의활'의 의미를 '학생회와 학생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에 과학생회장을 해보니 단과학생회와 학생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학생회와 학생간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다. 동양대에 최선인 단과장이라는 권군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1700 동대인을 책임지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오를 다졌다.

서대 학생회장 추진진(서반어 3)

후배들과 MIT준비반 의중에서 만난 추진진군은 당선소감을 "시름없게 하겠다"고 표현했다. 이 당선소감을 "학생들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내 가는 정력적선거가 아니라 비방으로 치우친 기조가 있었다"는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했다. 그런만큼 내년 한 해동안 "학생들의 의사가 소모임과 과학생회 강화를 위해 도와주는 서대 학생회가 되었다"고 결의를 밝혔다. 박영준은 "1만년 문화"와 다양한 '영양분' 위인의 길을 두루족어 이 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범대 학생회장 김현식(법학 2)

김현식군은 서울배움터의 의연 소모임과 대 학생회장이다. 그러나 부학생회장인 차준우(2)군과 함께 범대학생회의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나갔다는 결심은 대단하다. 그가 생각하는 범대 학생회 혁신방안은 학내학생회 건설, 등 기조를 바로 잡음으로써 대중

용인

동대 학생회장 박이태(태국어 3)

"어디서든 못 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다. 융통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학생회를 이끌겠다"라고 말하는 단과장 후보 박이태양. 그의 말속에 담담함이 배어있었다. 매년 공약(공약)은 공약(약)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은 11대 동양대 사부국장을 맡았던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금도 과학생회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동우어대 학생회장 박재용

과 회의를 하면서 사대생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는 박재용은 "혜적에 내게 보여주었던 선배들의 후은

모습들을,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털어놓는다.

박군은 내년 동우어대는 단과 분리 이전의 해로 학생회 지지활동을 활발적으로 보강하는 뜻 깊은 해라며 "매년 가을에 있던 '폭풍'을 살 수 학기 초로 앞당겨 축하 생일감을 보낼 것이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대 학생회장 황덕희(경제 2)

"경상대 학생회는 앞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지지하지 않는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대에서 함께 하는 학생회"라며 박군은 말했다. 그리고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믿음과 신뢰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또 요즘 학문의 고진은 '경상대 과 학생회 건설되지 않아 내년에 실을 부대'가 일할 사명이 부재한 것. 계열의 특성과 선대에 있어서 1학년들이 혼란을 겪어내야 할 것이라며 우려이다. 그는 내년도 학군은 '회합을 도모하고, 도약을 믿음으로'라는 경상대 기조를 외치고 있다.

서대 학생회장 이임용(영어 3)

"1800 사대인의 참여·지지·연대" "경영을 넘어 자율, 공존의 자유대"라는 모토를 걸고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된 이군. "경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그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해로 정쟁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고 밝혔다.

특히 이군은 "사대 40개 소모임을 위해 재정적, 공간적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자연대 학생회장 김승현(화학 3)

"제 2의 자연대 건설"이것이 자대의 목표. "현재 자대 2, 3, 4층은 거의 대안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대의 전체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다"고 김군은 토론했다. 이러한 공간문제와 과, 단과로 단합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맞게 김군은 개성사도 임무부(연대) 주지장도 믿는다

공대 학생회장 배현성(정보 3)

1학년-공대 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2학년-정보통신공학과 과회장, 3학년-공대 학생회장, 4학년-공대 정보통신공학과 과회장 등 학생회를 지켰던 배현성군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불신은 모두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져 공대 학생회장 책임을 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98년 주류시장은 그동안의 정제성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대 중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며 "열린 학생회로서 학우들과 함께 하기위한 길을 구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경 학생회장 원정신(영어 3)

"과외형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선거 운동을 할 때 못했었던 조항인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주셔서 정말 든든하다"고 생황림동(상경) 학생회원의 당부 회장을 맡은 원정신은 선거운동을 바탕으로 이끌어 밝혔다.

"그동안 조항위원회도 조항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원정신은 "이러한 지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여학생회장 안은성(영어 3)

"갑신의 기쁨보다는 총여학생회가 변화해야 할 여러 지점들을 많은 고민과 걱정이 앞서다"며 당선소감을 밝힌 총여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안은성은 "총여학생회에서 정말 든든한 힘이 없지 않다면 부족한 지점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열린 총여학생회로서 소통과 비관 주선으로 충했다"고 밝혔다.

또 안은성은 "98년 주류시장은 그동안의 정제성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대 중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며 "열린 학생회로서 학우들과 함께 하기위한 길을 구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 학생회장 배현성(정보 3)

1학년-공대 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2학년-정보통신공학과 과회장, 3학년-공대 학생회장, 4학년-공대 정보통신공학과 과회장 등 학생회를 지켰던 배현성군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불신은 모두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져 공대 학생회장 책임을 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98년 주류시장은 그동안의 정제성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대 중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며 "열린 학생회로서 학우들과 함께 하기위한 길을 구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 학생회장 배현성(정보 3)

1학년-공대 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2학년-정보통신공학과 과회장, 3학년-공대 학생회장, 4학년-공대 정보통신공학과 과회장 등 학생회를 지켰던 배현성군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불신은 모두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져 공대 학생회장 책임을 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98년 주류시장은 그동안의 정제성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대 중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며 "열린 학생회로서 학우들과 함께 하기위한 길을 구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ique & Best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명의로부터 특강을 받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모든 학과에 명망 있는 사범을 인솔하고 있다는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키운다!

한국외대는 4년안에 이 새내기를 국제전문가로 키우겠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국제화 시대 -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받은 국제화 시대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 국가에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과 대학으로 선정해 국제 협력, 봉사, 지역 전문기를 집중 양성합니다.
- 언어, 문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제화 시대의 전문기를 양성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10% 이상이 외국 현지에서 국제전문가로 뛰고 있습니다. ● 국내 최대 80여명의 외국인 교수진을 갖추었습니다.
- 해외 44개국 78개 명문 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외국어 교육이 실시됩니다.



'9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입생 모집 (정시 "다"군)

●서울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전공	특차 및 특별전형 (40%)				정시 모집
				일반	추천	특기자	계	
서양어대학	인문	영 어 과 불 어 과 독 일 과 노 어 과 서만어과 이태리어과 포르투갈어(브라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페인어과		46	7	7	60	94
				30	5	5	40	70
				30	5	5	40	62
				16	2	2	20	30
				30	5	5	40	69
				11	1	1	12	18
				11	1	1	12	18
				11	1	1	12	18
				11	1	1	12	18
				11	1	1	12	18
동양어대학	인문	중 국 과 일 본 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아랍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타이카어과 이란어과		30	5	5	40	70
				30	5	5	40	69
				11	1	1	12	19
				18	2	2	20	31
				11	1	1	12	19
				11	1	1	12	18
				11	1	1	12	18
				11	1	1	12	19
				11	1	1	12	18
				11	1	1	12	19
사회과학대학	인문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신문화승화과	53	7		60	91
법과대학	인문	법 학 과		53	7		60	91
상경대학	인문	상경계열	무 역 과 경 제 과 경 영 과	91	13		104	159
사범대학	인문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12			12	19
				12			12	18
				12			12	18
				12			12	18
소 계				585	73	34	692	1,092

●용인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전공	특차 및 특별전형 (40%)				정시 모집
				일반	추천	특기자	계	
인문대학	인문	인문 학부	철학전공 사학전공 언어학전공		6		6	115
서양어대학	인문	영 어 과 불 어 과 독 일 과 노 어 과 서만어과 포르투갈어(브라질어)과 이태리어과 폴란드어과 루마니아어과 체코어과 헝가리어과 유고어과		36	6	6	48	72
				4	4	4	8	74
				4	4	4	8	72
				2	2	2	4	47
				4	4	4	8	72
				2	2	2	4	29
				2	2	2	4	28
				2	2	2	4	38
				2	2	2	4	38
				2	2	2	4	38
동양어대학	인문	중 국 과 일 본 과 아랍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태국어과 아프리카어과 인도어과		16	2	2	20	30
				12	2	2	16	24
				2	2	2	2	38
				2	2	2	2	38
경상대학	인문	경상계열	무 역 과 경 제 학 과 경영정보학과	7			7	133
자연과학대학	자연	수학, 통계학부 물리, 화학부 환경, 생명공학부	수 학 전 공 정보통계학전공 물리학과 화 학 전 공 환경학전공 생명과학전공					80
								91
								102
								110
정보산업공과대학	자연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과부 전자, 제어공학부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제어공학전공					100
								110
								50
소 계				64	60	24	148	1,640
총 계				649	133	58	840	2,732

서울·용인캠퍼스 공동사항

- 어학특기자 및 외국어우수자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특차 모집인원에 포함되어 선발함
- 특차 및 특별전형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 모집인원에 포함되어 선발함

1. 전형일정

가. 특차 및 특별전형

- 1) 원서교부: 1998년 12월 1일(화) ~ 22일(화)
- 2) 원서접수: 가) 서울: 1998년 12월 20일(일) ~ 22일(화) 나) 지방: 1998년 12월 20일(일) ~ 21일(월)
 ● 지방접수는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만 접수할 수 있음(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창원, 강릉, 제주)
- 3) 전 형 일: 1998년 12월 23일(수) - 외국어우수자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 지원자만 면접(구술)고사 실시

나. 정시모집

- 1) 원서교부: 1998년 12월 1일(화) ~ 30일(수)
- 2) 원서접수: 가) 서울: 1998년 12월 28일(월) ~ 30일(수) 나) 지방: 1998년 12월 28일(월) ~ 29일(화)
- 3) 전 형 일: 1998년 1월 18일(일) - 인문계 지원자만 논술고사 실시

2. 지원자격

가. 특차모집(일반전형)

- 1) 서울캠퍼스 전학과: 수능시험의 표준점수 취득성적이 동일계열 상위 6%이내인 자
- 2) 용인캠퍼스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수능시험의 표준점수 취득성적이 동일계열 상위 12%이내인 자
- 나. 어학특기자 특별전형: 서울캠퍼스는 수능시험의 표준점수 취득성적이 동일계열 상위 30%이내, 용인캠퍼스는 동일계열 상위 40%이내 다. 외국어우수자 학교장추천 특별전형: 서울캠퍼스는 표준점수 취득성적이 동일계열 상위 10%이내, 용인캠퍼스는 동일계열 상위 20%이내 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서울캠퍼스는 수능시험의 표준점수 취득성적이 동일계열 상위 20%이내, 용인캠퍼스는 동일계열 상위 30%이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가. 특차전형: 수능 100% 나. 어학특기자 및 농, 어촌 특별전형: 수능 100%
- 다. 외국어 우수자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 수능 90% + 면접 (구술)고사 10%
- 라. 정시모집: ●인문계: 수능 50% + 학생부 40% + 논술 10% ●자연계: 수능 60% + 학생부 40% (논술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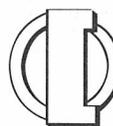
3. 원서판매 장소

- 국민은행: 수원, 동인천, 강릉, 원주, 청주, 부산중앙, 대구, 대전, 전주, 광주, 제주지점
 제일은행: 부산(부정동), 대구(중앙), 광주, 대전, 춘천, 강릉, 분당, 전주, 천안, 전주, 마산, 제주지점
 주요서점: 서울·영풍문고(399-5593), 교보문고(397-3500), 종로서적(733-2331), 두레문고(932-3822),
 한가람문고(535-1600), 동화서적(552-6355), 세종서적(419-4471), 서울문고(553-3038), 영등포문고(671-5651),
 교민문고(488-2151), 서울원서문화센터(233-2085), 정림금제(922-7214~5), 서울방음(544-0750)
 인천-경인문고(032-613-2199), 한겨레문고(032-515-2500) 알산-현암문고(0344-905-0700)
 안양-대동서점(0343-47-8000) 대전-대훈서적(042-254-7001) 광주-국민도서(0416-858-3312~3)
 홍성-학우서점(0451-632-4140) 광주-서원방문고(062-510-6306) 대구-학우서점(053-425-4363)
 부산-동양서점(051-635-8412) 속초-문우당서점(0392-635-8055)

4. 입학문의 안내

- ☎ 입학상담: ARS상담 (02)961-4480~4483, 일반상담 (02)961-4484~4490, (0335)330-4299
- ☎ 장학상담: (02)961-4034~4035, (0335)330-4034~4035
- ☎ 기숙사상담: (0335)330-4102~4103
- ★ 인터넷 입시정보: <http://www.hufs.ac.kr> e-mail : adms@maincc.hufs.ac.kr

외대로 오는 길은 세계로 가는 길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